

특별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무슨 일을 하는가?



강은미 포천시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만이 넘는 큰 조직이라면 큰 조직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한우물 한곳에서만 20년째 포천에서 근무중인 포천 토종인 나로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시(지사장 정홍식)가 내 고향이자 내 보금자리이다.

우리 공단은 1988년 전 국민의료보험으로 태어난후 현재는 발전을 거듭하여 2000년 국민건강보험으로 이름을 바꾼후 각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으나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로서는 정말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지금은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가 사라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제 건강보험공단이 징수와 급여의 한계를 벗어나 대 국민 서비스를 전개함에 있어서 주민들께서 꼭 알아 두시면 도움이 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7년도

역점사업으로 진료비 적정확인업무, 건강검진 및암검진, 생애전환기 검진사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바 우리지역 주민들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우선 가족이나 주변의 지인들께서 병원을 이용하바 과도하게 본인 부담액이 나왔거나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다면 비급여 처리한 부분이 상당액 나왔다면 이 비급여 부분이 정당인지 부당인지 여부를 전문 전문가가 아니면 판단하기 쉽지 않다. 보험공단에 오래도록 근무한 본인도 수시로 바뀌는 수 천 가지의 요양급여기준을 다 알고 있거란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진료비 내역이 궁금하다면 들고 오시는 영수증 사본을 공단에서는 요양기관에 구체적 자료를 요구, 첨부하여 공단 심사평가원에 의뢰하여 명확한 급여 여부를 파악하여 본인에게 잘못 부과한 진료비를 환급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아쉬움은 주민들께서 부당한 것 같으나 귀찮아서, 내

지는 요양기관을 무조건 믿는 풍토가 만연되어 가입자의 권리보호를 못 받고 있으며 올바른 진료비 청구풍토에 부응치 못하는 결과가 있는 것이다.

서울 시내나 큰 도시의 건강보험공단에는 주민들께서 부당한 것 같으며 들고 오시는 영수증의 접수사례가 하루에도 몇 번씩 빈번하지만 우리 포천 지역에는 많은 홍보를 함에도 거의 전무한 것은 너무 건강해서 일까?

우리지역 주민들께서는 여유롭지는 못하지만 정말 어렵게 건강보험료를 내시며 가족들의 건강이 별탈 없으시길 늘 노심초사 하신다. 그러나, 질병은 예고 없이 서서히 찾아오며 또 잠복하다가 수시로 건강을 해치려 한다.

이, 평소 건강관리를 본인 스스로 철저히 하며 민반의 준비를 해놓았을 때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와 질 수 있다. 그 준비 중 하나가 건강검진이다. 우리공단에서는 지속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본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암도 많은 수 발견하여 초기에 치료받게 하고 있다.

지금은, 예전에 간단한 예방검사가 아닌 구체적 방법으로 실시하며, 요양기관의 검진장비 현대화로 혈액 몇 방울, 약간의 소변으로도 수십가지 질병을 찾아내서 알려 준다. 특히, 공단에서 실시중인 5대 암 검사와 생애전환기 특별검진(67년생, 41년생)은 주민들께서 내신 보험료로 고액이 병원에 지급되고 있기에 꼭 가입자 권리를 찾으시길 부탁드린다.

우리 공단은 국민들과 함께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고 지역주민(가입자)들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사례관리사 및 간호사가 만성질환자 노인분들 자택에 찾아가 직접 돕고 있으며 동네 마을회관에서는 전문가들이 정기적으로 노인들의 건강운동을 시키고 있다. 또한 영세한 가정 어린이들에게 직원들이 도시락 배달도 하고 있다. 이제 주민들도 허심탄회하게 저희공단을 사랑방 같이 찾아와 주실 것을 기대한다.

교육에세이 51

구스 히딩크의 축구철학 '수비 4계명'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때 그 순간을 기억하면 신바람이 나고 신명나는 일 중에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다. 지구인의 축구 축제인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당당히 우리나라가 4강까지 올라간 신화가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이 신화가 창조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분이 바로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구스 히딩크(Gus Hiddink)이다.

구스 히딩크(Gus Hiddink 네덜란드어: 휘스 히딩크, 문화어: 구스 히딩크)는 네덜란드 파르세벨트(Varsseveld) 출신의 축구 감독이다. 2006년에는 네덜란드 PSV 에인트호벤과 오스트레일리아 축구 국가대표팀의 감독을 맡아, 호주 국가 대표팀을 16강까지 올려놓은 바가 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네덜란드 축구 국가대표팀을 4위에 올린 것과 2002년 축구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4위에 올린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는 분이다.

구스 히딩크(Gus Hiddink)는 그만큼 고집하고 심지어 축구 철학으로 여기는 '수비 4계명'이 있다. 이 '수비 4계명'을 교육에 벤치마케팅

해 보고자 한다.

제1계명은 '머리를 들고 살피라'이다.

순발력과 재치와 가치가 종합적으로 적용되는 축구 경기에서 자기 팀과 상대 팀의 선수들이 어떤 형태로 포진되어 있는지 알아야 패스와 드리블링이 순조로울 수 있고, 어느 순간에 패스를 해야하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경기장에서 실제로 뛰어 보면 발로 차는 경기이다보니 공을 바라보면서 차는 경우가 많아 패스와 드리블링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도 제1계명에서 '머리를 들고 살피라'를 든 것 같다. 교실 현장으로 이 계명을 접목시켜 보겠다.

요즈음 교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원의 잡무를 줄여야 한다고 한다. 교실에 계시는 선생님들을 보면 교육활동을 하시는 시간을 제외하고 거의 교실 전면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만 바라보고 계신다.

즉, 교탁아래에 있는 컴퓨터만 바라보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자연 학급 경영하는데 간과되는 면이 노출될 수 있다.

그래서 자주 머리를 들고 교실

전체를 살피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본다. 학습지도, 생활지도, 학생 개개인 상담, 교실환경 재구성 등에 대해서 다양한 구상이 떠오르리라 본다.

제2계명은 '생각하고 PLAY 하라'이다.

축구 경기장에서 선수들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나의 움직임에 대하여 선수들이 어떻게 움직일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다면 경기는 쉽게 풀릴것이다.

그러나 공을 잡았을 때 막무가내로 패스한다면 의외로 경기는 어렵게 진행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교육 현장에서도 이 계명은 적용된다. 담임하고 있는 학생 개개인의 발달 정도를 파악하여 각각의 학생에 대하여 '생각하고 교육활동-PLAY'를 맞춤형으로 개별지도도를 가할 수만 있다면 성공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리라 확신한다.

제3계명은 '움직이며 수비하라.'이다.

축구 경기에 있어서 공격도 중요하지만 수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경기에서 진다는 결과는 자명하다. 수비의 경우에 수비 위치만 고수하다 보면 상대 선수에게 허를 찔릴 수 있다.

적당한 지점에서 수비의 위치를

움통성 있게 바뀌게하면서 수비했을 때 즉, '움직이면서 수비'했을 때 경기를 원만하게 진행해 갈 수 있을 것이다.

교육현장에서도 학급경영계획에 의해 교육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진학생, 정상학생, 부진학생이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 사제 동행하여 사랑의 대화로 임장지도 하고, 아동과 눈높이를 맞추어 보면 문제가 발견되고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 모색될 수 있다.

제4계명은 '역습 때의 배후 조심'이다.

축구 경기장에서 종종 벌어지는 장면이지만 전혀 생각지도 않은 역습을 당해 혼란이 나는 경우가 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역습을 당하게 될지 모른다.

늘 '늘 역습때의 배후를 조심'해야 경기를 잘 진행 할 수 있다. 교육현장에서도 잘 계획된 교육활동이라고 해도 가끔 생각지도 않은 부적절한 교육행동-학교폭력,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 지역사회의 항의 등등의 발생으로 난감한 경우가 종종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교수학습지도후 학습 결과에 대한 비교육적인 내용에 대하여 추수지도-FEEDBACK-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호연 행정전문학교 교장

특별기고

위대한 대통령감은 누구인가?



이중희 경기교육원 경기도교육원 부원장

경험 없는 학문보다는 학문 없는 경험이 낫다고 했다.

미국의 17대 대통령 앤드류 존슨은 매우 불우했다. 그는 3세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너무 가난하여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 13세 때 양복점의 심부름꾼으로 들어가 일을 배웠고, 18세에 구두 수선공의 팔과 결혼했다. 학교 공부를 하지 못해 글을 읽고 쓰지도 못했던 그에게 처음으로 글을 가르쳐 준 사람은 바로 그의 아내였다.

그런데 그는 공부에 대한 열정이 크게 대단해서 매일 같이 자정을 넘어 새벽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마침내 독학으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이어서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되었다가 상원의원까지 되었다.

그 후 그는 링컨 대통령의 신임을 받게 되어 부통령이 되었는데 링컨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게 되자 그의 잔여 임기의 대통령 직을 끝낸 다음, 제 1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는데, 그 때 그의 반대편 쪽에서는 그에게 "일자무식으로 초등학교도 못 다닌 양복쟁이 주제에 어떻게 감히 미합중국의 대통령을 넘보단 말인가"라고 야유와 비난의 화살을 퍼 부었다. 그러나 앤드류 존슨 후보는 이렇게 응수했다.

"그렇습니다. 나는 저 사람의 말대로 초등학교도 못 다닌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학교에 다니셨다는 기록은 아무데에도 없고 더욱이 그 분은 목수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멋지고 통쾌한 응수로 유권자들의 박수를 받았고, 무난하게 미국 17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온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그 뿐인가. 그는 대통령 재직 시에 미국 역사에 남을 큰 업적을 남겼으니, 그것은 바로 소련으로부터 알래스카의 넓은 땅을 단돈 720만 달러에 사들인 것이다. 그 당시에는 온 미국이 반대 여론에 휩싸였었다.

"눈과 얼음뿐인 슬도 없는 땅을 사들였다." "배우지 못한 무식한 대통령이 하는 것이 그럴 수밖에"

라며 그 당시 반대당의 사람들은 비아냥거렸고 심지어 암살 위협까지 받았으나 앤드류 존슨 대통령은 미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굳세게 밀어 붙였고, 소련은 슬도 없는 땅을 비싸게 팔았다고 피티를 열었다.

그것은 오늘날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가는 부자 나라, 강한 나라가 되는 원동력이 될 만한 큰 업적이었다. 그 땅속에 금, 석유, 석탄 등의 수많은 천연자원이 묻혀 있을 줄 누가 알았겠는가?

그것을 안 미국 국민들은 앤드류 존슨 대통령의 선견지명에 마음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초등학교도 못 다닌 양복쟁이 출신이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 후보 중에서 누가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는 선견지명이 있는지 눈여겨보자.

성명서

경기북부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고조중 국회의원

지난 7월25일 정부가 발표한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은 국가 안보를 위해 지난 50년간 피해를 감내해 온 경기북부지역(연천, 포천, 양주, 동두천, 파주, 의정부 등) 주민들의 의욕을 한순간에 꺾어 놓은 배은망덕한 조치이다.

안보라는 이유로 수 십 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으며,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개발이 제한되는 등 각종 중첩된 규제로 인하여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전국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치는 생활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그 결과 지역주민의 극심한 고통과 희생으로 인하여 도시기능이 한계에 이르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가 배려를 못할망정 오히려 성장지역으로 묶여 개발을 제한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경기북부 지역 주민일풍은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을 불균형 발전종합대책으로 간주하고, 정부에 강력히 시정을 촉구하며, 경기북부를 성장지역으로 편입한 관계자들의 문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7. 9. 20

2007 제6회 포천사랑 백일장 대회 개최요강

1. 목적 : 포천을 사랑하는 시민과 학생들이 문학에 대한 소질을 발굴하고 이를 통한 지역 향토문학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일시 : 2007년10월10일(수) 오후1시
3. 장소 : 포천반월아트홀 광장 (*우천시에도 반월아트홀 실내로 옮겨 예정대로 진행할 것임.)
4. 대회종목
 - 1) 부문 : 초등부, 중학교부, 고등학교부, 일반부(대학생 포함)
 - 2) 종목 : 운문, 산문
5. 참가자격
 - 1) 학생 : 관내 초·중·고교 학생으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 2) 일반 : 관내 소재 대학(교) 학생 및 포천시 거주주민

*학교장께서는 9월30일까지 참가학생 명단을 포천시교육청(주경옥님)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학생 및 일반은 대회당일 현장에서 접수합니다.
6. 참가비 : 없음
7. 준비물 : 필기구(*원고지는 주최 측에서 당일 배부할 것임)
8. 시제 : 포천사랑에 관련된 주제로 대회당일 발표
9. 시상 : 입상 등급에 따라 포천시장, 포천시의회 의장, 포천교육장, 포천예총회장, 포천문인협회장장상(입선 이상) 및 상품(차하 이상)을 시상함.

*장원이나 다수의 학생을 입상시킨 지도교사(2명 선정)에게는 시상 또는 교육장 표창을 시상하며 입선작품은 책자「포천 글사랑」에 수록 발행.

*시상기관인 포천시, 포천시의회, 포천교육청에서는 수상자에 대한 표창 의뢰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심사위원 : 문인협회 소속 교수 및 등단작가들로 구성 엄정 심사.
11. 시상식
 - 1) 일시 : 2007.11월 초순예정(추후 통보)
 - 2) 장소 : 포천여성회관(3층 청성홀)
12. 대회 관련문의
 - 1) 포천예총(포천문인협회) : 전화 : 031-531-8181, 전승 031-532-8240
 - 2) 포천문인협회 : 이재욱 회장(018-225-3191), 이원용 사무국장(017-364-9999)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포천지부장 이재욱